글로벌 가치사슬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: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전·후방참여 효과의 국제비교를 중심으로

김세완(이화여대) · 최문정

(연구 배경)

-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, 이하 GVC)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심화되며 세계교역의 성장세를 이끌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약화되면서 세계교역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 - GVC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GVC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
- ⇒ 본 연구에서는 GVC 참여가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 분석

(분석 방법)

- GVC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세계투입산 출포*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-2014년중 4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간 패널 분석을 수행

* 2000-2014년 기간중 43개국 56개 산업간 투입·산출 구조를 연결하여 보여주는 자료로서 네덜란드 University of Groningen이 12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작성

- 실증모형은 국가별 실질GDP 증가율을 종속변수로, GVC 전·후방 참여도*를 설명변수로, 국가별 자본, 인구, R&D 및 실질실효환율, 실질시장이자율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추정

* GVC 전방참여는 중간재 수출을 통한 GVC 참여를, GVC 후방참여는 중간재 수입을 통한 GVC 참여를 의미함. GVC 전방참여도는 원자재 및 소재·부품 등 중간재 수출비중으로, GVC 후방참여도는 국내생산에서의 수입 중간재 투입비중으로 측정

문의처: 최문정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(☎ 02-759-5540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GVC 참여의 영향을 업종별(①제조업, ②서비스업) 분석과 함께 경제발전 단계별(③선진국, ④개도국)로도 나누어 분석
- 또한 2000-2008년과 2009-2014년 기간을 나누어 추정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GVC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를 분석

(분석 결과)

□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·후방 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

○ 제조업의 GVC 전방참여와 개도대상국 대상 GVC 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위기 이전 유의하지 않거나 음(-)의 효과를 나타냈으나 위기 이후 모두 유의한 양(+)의 효과를 보임

* 위기 이후 제조업의 GVC 전방참여도가 1%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0.001%p 증가하며, 개도국 대상 GVC 전방참여도가 1%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약 0.024%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

○ 서비스업의 GVC 전·후방참여와 선진국 대상 GVC 전·후방참여는 위기 이전에는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

(시사점)

□ 제조업 및 개도국 대상 GVC를 중심으로 전방참여가 높을수록 경제성장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고부가가치 소재·부품을 생산하여 개도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GVC에 참여할 때 경제성장률이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